기술과 품질로써 기업체질 개선해야

손정수／본회 비상근 이사
홍창물산(주)사장

전자산업의 측면에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특히 우리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기업의욕의 저하, 설비투자의 부진, 연구개발의 한계 등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자산업 발전의 토대이자 기본인 전자부품, 소재산업의 낙후가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기술과 품질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전자부품이나 재료의 경우 생산기술측면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설계나 재료처리 기술면에서는 아직도 외부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더우기 동남아산 일제제품과 우리제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는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과 품질로써 전자산업을 주도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척도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정도와 기술축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산업발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전자산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기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질 강화라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난날의 귀중한 경험과 기술중시의 사고를 바탕으로 전자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전자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연구체제에 효율화를 기하며 기술인력을 고급화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날로 첨예화되는 하이테크 경쟁과 세계경제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신제품개발은 물론, 마케팅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시장동향을 수시로 파악, 점검, 분석하여 이를 생산에 반영하고자는 산업전반의 노력과 기업공동의 경영체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자업계는 한국산업의 리더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우리 산업발전에 전자산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전자산업 스스로의 경영개선과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조속히 가시화 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내실과 기업체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전자산업의 성패는 결국 선진국의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가면서 중국,동남아산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여하히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금년도 전자산업을 회고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전자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 기업인 모두는 합심,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은 새로운 시대여건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기술개발 추진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국가산업에 필수적인 중추 산업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자기역할 다하기에 솔선수범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재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길 때이며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는 내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해 본 다.